[태국, 2013년 11월] 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

1. 태국 현장 이슈

▶ 태국 무역 협회 주관으로 노동자 인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태국 수산물 제조업체 연합 TFPC 발족

- The Thai Fishery Producers Coalition (TFPC)로 명명된 연합회는 태국 냉동식품 연합회, 태국 식품 가공업체 연합, 태국 참치 산업 연합, 태국 새우 조합, 국립 수산물 조합, 태국 해외 수산물 연합, 사료 조합 등이 함께 참여 (The Fish Site, Bangkok Post - 2013년 11월 12일, 13일)

- 2013년 11월 12일 '수산업 관계 불법 노동 금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

- 불법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노예 노동 및 인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의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 업체의 협력 촉구

- 정부가 강력한 규제 조치 등을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촉구

- 태국 수산업계의 불법 노동 및 노동자 인권 유린 등의 이슈가 NGO 나 인권 단체만의 이슈를 벗어나 주요 언론의 보도됨에 따라 및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공분을 사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업계의 대비책

- 이에 앞서 11월 7일 태국 수산물 관련 협회 8개는 지속적인 수산업을 위한 환경 및 자원 보존 등에 관한 양해 각서에 체결함 (The Nation, Nov. 7)

▶ 페루 수산업체 10개사 대표들 태국에서 수출확대 행사를 위한 행사 진행

- 올란타 후말라 페루 대통령의 태국 방문과 함께한 무역 방문단의 일환으로 대통령을 위시로한 적극적 페루산 농수산물, 제품 홍보 활동 (The Nation, September 21, Presidential Push for Peruvian- Thai Trade)

- 태국과 페루 FTA 체결로 수산물을 위시한 식품 교역 증가 기대

- 11월 페루 대통령의 태국 방문단과 함께하는 페루 무역 방문사절에 다수의 수산물 업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페루산 수산물 태국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상담, 바이어 초청 세미나 및 설명회 진행 (The Fish Site News, Oct. 31, Peru Promotes Fish Products in Thailand)

- 양국간의 FTA로 페루는 캔식품, 밀가루, 냉동생선, 어분(fishmeal), 포도 등의 식품 수출의 확대를 기대

- 양국의 무역 규모는 2012년 기준 6.5 억 달러로 2005년의 85 백만 달러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 (Bilateral.org news Oct. 15, Peru's FTA with Thailand to increase exports of grapes and fish)

- 태국은 수산물 시장 아시아 2위, 세계 4위 규모 시장으로 페루뿐 아니라 세계 수산 제조사 및 업체에게 주요한 시장이며 수산물 가공산업의 발달과 수출 증대로 수산물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The Fish Site News, Oct. 31, Peru Promotes Fish Products in Thailand)

▶ 새우 양식의 위기 최악의 상황 벗어나 호전기미 (The Nation, Nov. 26, Shrimp business on the road to back)

- EMS의 치료방법은 아직 설전 중에 있고 태국산 새우는 2012년 55만 톤에서 올해 25만 생산으로 급격 줄었으나 내년 30만 톤에 이어 서서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50만 톤 선을 회복할 것으로 관망

2. 수산물 수입 동향 및 전망

▶ 태국 전갱이 수입현황(2013년10월 누계)

수입국가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Kg/USD	2013단가 Kg/USD
노르웨이	566	1,107	36.0%	-35%	-44%	2.3	2.0
네덜란드	333	607	19.7%	-39%	-42%	1.9	1.8
한국	436	553	18.0%	-54%	-72%	2.1	1.3
독일	143	252	8.2%	전년도 수입無		1.2	1.8
중국	364	246	8.0%	203%	118%	2.2	0.7
뉴질랜드	85	181	5.9%	167%	139%	2.6	2.1
일본	41	68	2.2%	-55%	-52%	1.5	1.6
전체	**2,012**	**3,079**	**100.0%**	**-31%**	**-52%**	**2.2**	**1.5**

(데이터 출처: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 올해 10월까지의 태국 전갱이 수입은 2,012톤, 약 308만 불 규모로 지난해 동기 실적대비 물량 -31%, 금액 -52%로 대폭 감소

- 전년도 수입실적 1위로 10월까지 태국 전갱이 수입의 61%를 차지하며 947톤 이상 수입되던 한국산 전갱이는 2013년 10월 기준 전체 수입 금액의 18%로 436톤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 55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72%)에 그침

- 일본산 전갱이의 수입도 물량 38% 그리고 금액 36% 감소

- 지난해 6월 평균 수입가 2.3불의 노르웨이산 전갱이가 올해 Kg당 평균가 2불로 하락되면서 물량과 금액이 각각 67%, 39% 증가하여 한국을 제치고 수입 1위 국가로 자리 잡음

▶ 태국 고등어 수입 현황 (2013년 10월 누계)

수입국가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Kg/USD	2013단가 Kg/USD
일본	23,235	23,092	48.4%	111%	120%	1.0	0.9
중국	12,603	10,987	23.0%	-51%	-52%	0.9	0.9
노르웨이	4,958	9,214	19.3%	102%	-35%	1.9	2.9
영국	524	1,287	2.7%	182%	447%	2.5	3.2
한국	1,290	1,086	2.3%	-42%	-36%	0.8	0.9
전체	**45,076**	**47,679**	**100%**	**-30%**	**-36%**	**1.1**	**1.2**

(데이터 출처: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 올해 10월까지의 고등어 수입은 45,078톤, 47.7백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수입량 30%, 수입 금액 36% 감소함

- 지난해 10월까지의 고등어 수입가는 Kg당 1.2불에서 올해 동기 1.1 불로 소폭 하락

- 원전사고로 일본과 주변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품목인 일본산 고등어는 태국에서의 수입 증가를 꾸준히 거듭하여 전국에 보급량이 늘고 파키스탄산과 중국산을 대체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체 수입금액의 51%를 차지하며 1위

- 프리미엄 고등어로 선호도가 높은 노르웨이산은 전년 동기대비 2.9불의 높은 수입단가가 올해 대폭 하락된 1.9불로 수입되어 물량은 2%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입 금액은 9.2백만 불 규모로 35% 하락

- 수입가격의 변화 없이 중국산의 수입 감소가 가장 현저하여 전년대비 약 50% 감소하여 수입 1위국에서 2위국

- 한국산도 일본산의 수입 증가와 함께 올해 평균 0.8불이라는 평균이하의 수입가격에도 불구하고 물량 및 금액 모두 약 42% 감소한 1,290톤이 수입되어 4위 수입산지 기록.

- 지난해까지 미미한 수입물량을 보이던 영국산 고등어가 전년 동기 수입가 2.5불에서 3.2불로 가격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량 대폭 증가

▶ 태국 굴 수입 현황 (2013년 10월 누계)

수입국가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Kg/USD	2013단가 Kg/USD
프랑스	127	1,259	39.0%	147%	185%	7.9	10.0
중국	113	679	21.0%	231%	1344%	1.0	6.0
호주	60	472	14.6%	122%	114%	0.8	7.9
일본	21	246	7.6%	173%	152%	13.4	11.8
한국	62	244	7.6%	119%	120%	3.9	4.0
미국	22	230	7.1%	126%	146%	9.0	10.4
전체	**413**	**3,230**	**100%**	**122%**	**166%**	**5.7**	**7.8**

(데이터 출처: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 2013년 10월 기준 태국 굴 수입은 물량 413톤 및 3.2백만 달러로 각각 22%, 66% 증가함

- 평균 수입가격은 예년에 비해 약 2불 증가한 7.8불 정도이며, 한국산은 평균수입가격의 50% 정도 인 4불 정도로 전년대비 물량과 금액이 약 20% 증가함

- 올해 태국 굴 수요가 많아 최고가인 프랑스산, 일본산 및 미국산 모두 가격과 물량의 증가를 보였고, 작년 동기에 Kg당 1불에 48톤 정도 수입되었던 중국산은 4불 정도의 한국산보다 높은 가격인 Kg당 6불(CIF기준)로 전년보다 2배 이상인 113톤이 수입되어 13배 이상의 수입 금액 증가

- 고급 식당과 호텔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랑스산 굴은 산지의 가격이 5년 연속 상승하여, Kg당 5 유로를 상회함 (2013, November, FAO World Food Report, P 68)

- 경쟁국가에 비해 한국산의 수입은 가격과 수입 물량에 있어 물량과 금액 각각 10%, 20%의 증가하였으며, 전체 시장의 7.6%인 62톤/24.4만 톤 수입됨

▶ 태국 참치 수입 현황 (2013년 10월 누계)

수입국가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Kg/USD	2013단가 Kg/USD
타이완	132,281	289,158	19.6%	-10%	-15%	2.3	2.2
미국	107,086	227,373	15.4%	124%	120%	2.1	2.1
바누아투	79,635	171,842	11.7%	115%	109%	2.2	2.2
한국	74,836	161,473	11.0%	-1%	-2%	2.2	2.2
일본	42,302	91,450	6.2%	124%	102%	2.6	2.2
인도네시아	36,437	73,491	5.0%	-6%	-16%	2.0	2.0
중국	35,035	72,958	4.9%	130%	105%	2.1	2.1
필리핀	14,366	32,913	2.2%	-55%	-52%	2.3	2.3
전체수입	**679,059**	**1,474,538**	**100.0%**	**2%**	**-4%**	**2.2**	**2.2**

(데이터 출처: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 10월까지의 평균치는 전년도와 매우 비슷한 수준의 물량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 세계 최대의 참치 원료 수입 및 최대의 참치캔 수출 국가로서 참치시장의 가격 기준이 되고 있는 방콕의 가다랑어 거래 가격은 올해 7월 이후 감소세에 들어 전년 동기의 톤 당 2200 달러선에서 1800 달러선으로 하락되어 2011년 거래가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10월 거래 가격은 톤당 1770 달러로 낮게 거래됨

- 비용 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인해 대폭 상승하였던 수입 단가는 지난 3년 간 해 마다 30.4%, 26% 상승하여 2012년 수입 참치의 톤 당 평균 수입가는 2281 USD에 달하여 가공업체에 비용부담

- 한국 또한 지난해 1억 8천여 달러, 82,950달러 규모의 참치가 수입되어 수산물 수입 4위, 참치 수입 3위를 차지함 (태국 관세청 및 상무부 자료 기초)

-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은 수온 상승으로 약간 감소하여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나 가격은 떨어진 상태로 유럽과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참치캔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고 참치캔의 가격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참치캔 생산 업체에게는 호기 (2013, November, FAO World Food Report, P70)

- 한국산 참치가 전체 참치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전체 한국수산물 수입금액 중 참치 비중은 84%

- 대만은 전체 수산물 수입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 참치의 수입금액은 이의 97% 이상인 약 289백만 정도로 1위 수입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전체 수입금액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22.3%에 비해 조금 낮아진 19.6% 기록

- 한국이 수출하는 참치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Skipjack 가다랑어가 대부분으로 전체 평균 톤당 가격이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

▶ 태국의 김 수입 현황 (2013년 10월 누계)

수입국	물량 Ton	금액(천불)	물량 증감(%)	금액 증감(%)	물량 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YTD/kg	2013 단가 YTD/Kg
	2013년 10월 현황				10월 누적 현황						
1. 한국	146	2,133	149%	148%	1,800	25,523	77.7	155%	152%	14.5	14.2
2. 중국	119	855	158%	176%	966	6,176	18.8	-26%	-32%	7.0	6.4
3. 일본	34	37	-16%	-44%	51	560	1.8	144%	100%	17.0	11.8
전체	268	3,026	141%	151%	3,021	32,862	100.00	107%	120%	9.7	10.9

(데이터 출처: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 2011년 후반 이후 꾸준히 수입량이 늘고 가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건조김(비가공)은 작년 중국산을 제친 후 올해 10월 기준 77.7% 수입 점유율을 기록

- 기타 한국산 수산물이 경쟁국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것에 비해 조미김은 평균가 10.9불/Kg 보다 높은 14.2불로 2위인 중국산의 거의 2배에 달할 뿐 아니라 일본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됨

- 수입 해조류와 기타 품목이 혼재된 건조김의 통계수치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산 건조김의 실제 점유율은 전체 수입 금액의 90% 이상으로 추정되며, 김스낵 및 조미구이김 등 태국인의 김 가공식품 소비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수입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산 김은 전년 동기 kg당 17불의 고가에서 11.8불로 가격이 하락되어 수입 물량이 44%증가(51톤)하였으나, 금액이 32% 하락한 56만불을 기록함

- 원전 사고 이후로 자국과 인근 국가에서 소비량이 많이 줄어든 일본 수산물은 매우 낮은 소비자 가격과 공급량의 대폭 증가, 양국의 우호적인 정치 경제 관계, 원산지 표기법 취약, 현지 소비자의 낮은 안전 의식, 일본산 식품 선호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태국으로의 유입이 매우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3. 태국 수산물 시장 이슈

▶ 일본산 고등어 가격 하락과 저변 확대

Big C Extra 매장의 일본산 고등어 할인 행사 한 마리 당 27밧 (약 800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Big C Extra 매장의 일본산 고등어 구이 소스 포함 29밧 (약 950원)	Max Value 편의 슈퍼마켓 고등어 구이 포장 판매 한 마리 당 109밧 (약 3500원)

- 인도산이 주류를 이루던 저가 고등어 시장을 일본산이 대체하고 있는 중

MAKRO 매장 일본산 고등어 55-59 밧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프로모션 지속 진행)	MAKRO 매장 노르웨이산 고등어 129/135 밧 9~11월 초까지 재고가 없었으나 종전가 95-99밧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 입고되었음		Tops 매장 노르웨이산 고등어 (445 밧/ Kg) 위 (297 밧/ Kg) 아래

※고등어 가격 (작년까지 많이 보이던 인도산 저가 고등어가 일본산을 대체되어 판매 중)
- Gourmet Market 1kg/330 B (노르웨이산 / 통냉동)
- Makro 1Kg/55, 59 B (일본산 / 통냉동)
- 1 KG / 129/135 B (노르웨이산 / 통냉동)
- Big C Supermarket 1 Kg / 64 B (일본산 / 반해동 상태)
- Tops Supermarket 1 Kg / 297 B (노르웨이산 / 냉동)
- 1 Kg / 445 B (노르웨이산 / 해동 후 필레 손질한 소포장)

- 일본과 한국의 소비자들 사이에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요주의 또는 기피 수산물로 인식되어 소비가 부진한 일본산 고등어가 싼값으로 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해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법이나 규제가 미비하고 소비자의 안전 의식이 낮은 편인 태국에서 고등어 뿐 아니라 기타 일본 수산물의 수입과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고등어의 전체 수입은 증가세가 꺾이며 약 30% 감소하였으나 일본산만이 증가하였음